

법무부장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정책현장 방문

대규모 산업단지와 대학이 밀집한 충남권 핵심지역인 천안출장소의
사무소 승격 필요성 등 검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5. 11. 28.(금) 10:30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이하 '천안출장소')에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 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외국인력 등 증가 현황 >

(단위 : 명)

구분	체류외국인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자
'20. 10월	56,559	5,203	0
'25. 10월	86,510(52% ▲)	11,041(112% ▲)	1,813

※ '25. 10월 기준 천안출장소 관할구역(천안시·아산시·예산군) 내 대학교는 총 15개, 외국인 고용업체는 총 5,028개가 있으며, 전체 주민(1,187,332명) 대비 체류외국인(86,510명) 비율은 약 7.3%임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하고,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시설이 노후하여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체류민원, 사증발급, 사범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정책 현장 방문을 통해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혁신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책임자	과 장	윤철민 (02-2110-4010)
		담당자	사무관	이주호 (02-2110-4014)

